

전남

목포에 대규모 플랜트업체 들어선다

케이원플랜트, 210억 투자 협약 체결
후연부품생산 코믹스카본도 53억 투자

산업플랜트와 신재생에너지 부품 업체 등 2개 기업이 목포에 260억원 을 투자한다. 전남도는 8일 오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박준영 도시사와 정중득 목포 시장, 최병수 목포시청 대표이사, 최경립 케이원플랜트 대표이사, 서규식 코믹스카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케이원플랜트는 목포시청항만 부두 내 3만3천58㎡에 210억원을 투자해 220명을 고용, 조선해양·석유화학·발전업종 등의 운반설비에 필요한 강구조물 등을 생산하고 국내 관련기업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산유국에 수출한다. 이 회사는 목포시청항만 다목적 부두

를 장기 임대해 항만부두에서 플랜트를 제조·조립함에 따라 시간과 물류 비용 절감, 민자항만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목포시 연산동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코믹스카본은 9천917㎡에 53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태양전지(Solar cell), LED 산업 등에 필요한 인조 흑연부품을 생산한다. 이 업체는 국내 4대 흑연 부품업체중 하나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흑연 부품 국산화를 위해 유일하게 순수 국내자본으로 투자와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

다. 전남도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부품기업인 코믹스카본의 투자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품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준영 도시사는 협약식에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전남의 전략산업에 적합한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이 우리 고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서 왕인박사 행렬 재현행사 영암군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일본 아스카문화회를 포토팀인 박사행렬 재현행사를 가졌다. 영암군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영암영인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영암군 제공>



골목길 자전거 순찰 합평경찰서(서장 박찬홍)는 112 순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합평을 기차리 등 주택가에서 자전거와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신안 햇 천일염 28일 생산

신안의 햇 천일염이 오는 28일부터 생산된다. 신안군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친환경 천일염 명품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산 천일염 생산 개시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군은 820명의 천일염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생산 개시일'과 '종료일'을 지정 운영한 결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신안 천일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평균 기온이 낮은 시기에 생산된 천일염은 빛이 작

고 염화나트륨 함유량이 많아 품질이 떨어진다”면서 “평균 기온이 15°C 이상 올라가는 28일부터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천일염 생산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군은 천일염의 품질 균일화와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천일염 고급 포장화, 포장단위(20kg) 개선 등 '천일염 명품브랜드'화로 연간 800억원의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천일염 생산 마감일을 10월15일로 정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군수없는 담양 무더기 승진 잔치?

1년7개월간 간부직 36명 등 125명 인사 타 지자체와 대조적... 郡 “법적 하자 없다”

단체장이 공식인 상태에서 군수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의 경우 이모 군수가 '뇌물수수'와 '정지처분' 위반으로 직을 잃음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1년7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인 부군수 체제에서 4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4급(서기관) 1명을 포함해 5급(사

무관) 13명과 계장요원(6급) 22명 등 총 36명의 간부직 공무원을 조건당시 한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의 경우 이모 군수가 '뇌물수수'와 '정지처분' 위반으로 직을 잃음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1년7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인 부군수 체제에서 4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4급(서기관) 1명을 포함해 5급(사

사업부서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인사는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로 군수가 사퇴한 진도군과 대조적이다. 진도군의 경우 지난 4월 부군수가 대행하며 읍면이 1월 1일 한차례 인사를 실시했다. 6급이하 인사에서 인사출마와 장년 등 '뚜렷한' 이유로 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등 승진 21명, 전보 67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장흥군도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승진 134명, 전보 189명 등 336명에 대한 인사를 했으나 승진의 경우 5급 1명, 신규임용(9급) 13명을 제외하고 7급 이하가 85%를 차지한다. 이 같은 담양군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인사권 행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105조)의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임용권'을 침해했거나 남용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인사관계자는 “인사권자인 군수가 공식인 상황에서 자연 발생 인사요인에 대한 군수권한대행인 부군수의 인사권행사는 법적 구속력이 아무런 하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자치법(111조)상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의 영역범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제반업무에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으나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알려진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ark@

신안에 새우젓 저온저장시설 15억 들여 지도읍서 기공식... 6월 완공

새우젓의 주 생산지인 신안군에 새우젓 종합 저온저장시설이 오는 6월 들어선다. 신안지역 어업인이 주축으로 구성된 새우젓주식회사는 8일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우젓 종합저온저장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새우젓 저온저장시설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지상 1층 1천256㎡(380평) 규모로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종합 저온저장시설이 완공되면 새우젓을 직접 생산, 구매해 저온저장 및 가공해 유통·판매하게 된다. 특히 가공제품은 새우젓을 원료로

하는 천연조미료, 저염 젓갈, 건조 새우젓 등 고부가가치 향토식품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동안 전국 새우젓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신안 새우젓 대부분이 원재료 상태로 타 지역에 반출돼 왔다”며 “중·장기적으로 새우젓의 가공유통 종합저장시설 지원, 세계적인 새우젓 생산기지 및 가공·유통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지역 새우젓 생산량은 지난해 2009년 말 기준 184여기가 1만3천 600t을 생산, 29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민주평통 완도군협-거제시협 교류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가 동서화합을 위한 지역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는 경남 거제시평통협의회와 함께 지난 6일 완도호텔 회의실에서 합동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이상순 완도군 평통협의회장, 최성호 경남 거제시 평통협의회장,

육기재 거제시의회 의장, 차용우 완도군회의장, 이부남·손주호 도의원, 권인원, 각급기관 단체장,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과 거제시 평통협의회는 동서화합과 민족화해,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984년 자매결연을 하고 해마다 교류행사를 갖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새 얼굴 “인간교육 풍토 조성 온 힘”

김길도 장흥교육장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감동하는 장흥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장흥교육청 김길도(57) 교육장은 “무엇보다 인간교육의 바탕위에 지적과 기능을 가르치는 ‘선교인간, 후교지거’ (先敎人間 後敎知技) 풍토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김 교육장은 광주

교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5년 완도 화흥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광양교육청 장학사, 영암 화산초등학교 교장,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영임씨 사이에 1남1녀가 있으며 취미는 독서와 등산.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효상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8-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원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재테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내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입니다.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 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장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평	관객가	최저가	비고
영암군	신안동	부림	109/33	1억5천	7천3백
	송정동	문세곡이(조출)	112/34	1억3천3백	8천2백
	남구	송정동	211/64	4억5천	3억1천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남구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북구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서구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
	송정동	금리(부)	109/33	1억4천	8천9백